

고용동향 브리프

July 2018 **07**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02 이달의 통계포커스
6월 55세 이상 장년층 취업자 증감 특징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이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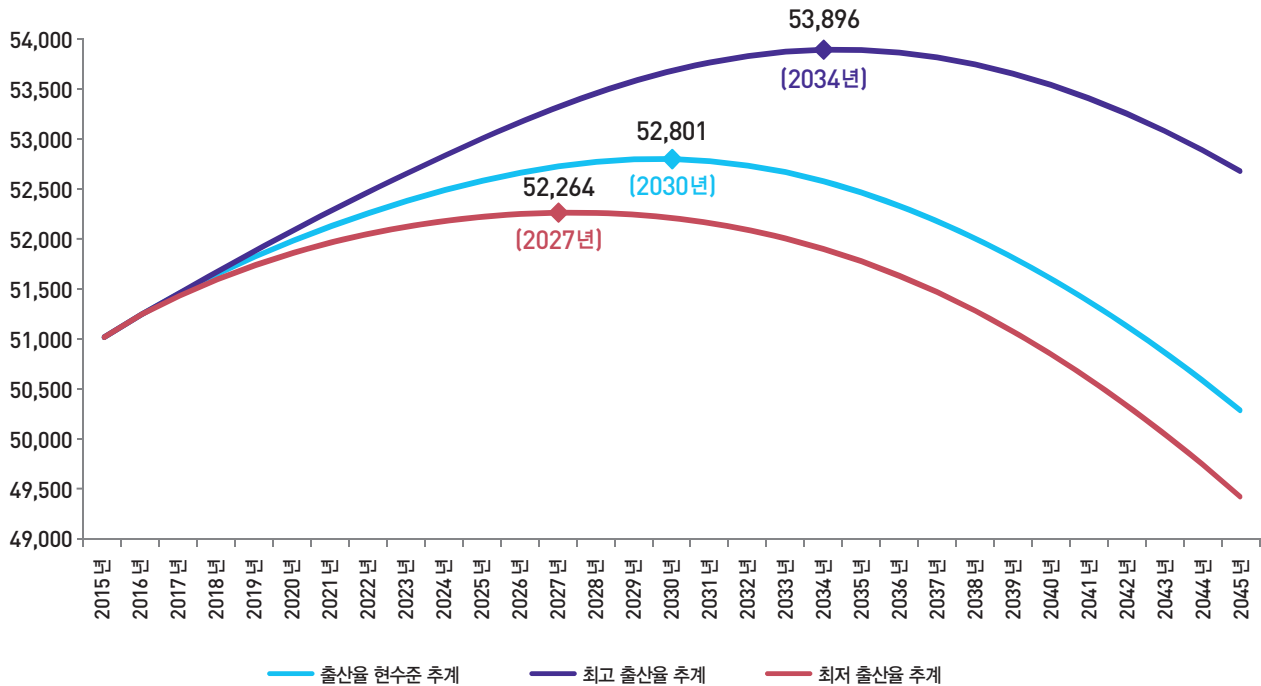
I. 들어가며

■ 다가오는 인구절벽

- 2017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그림 1] 참조)
 - ▶ 이런 전망은 합계출산율이 중위수준(2016 1.18명 - 2050년 1.38명까지 증가)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산출된 것임
 -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2017년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함
 - ▶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합계출산율 저위 수준(2016년 1.16명 → 2050년 1.12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인구 감소 시점은 10년 후인 2028년으로 앞당겨짐
 - ▶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합계출산율 저위 수준보다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인구감소는 2028년 이전이 도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 통계청에서는 현재의 추세를 따라갈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한 정점이 2028년이 아닌 2021년까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연합뉴스 TV, 2018. 6. 27)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평가 기획 팀장)(cclg007@keis.or.kr)

[그림 1] 향후 인구 추계 결과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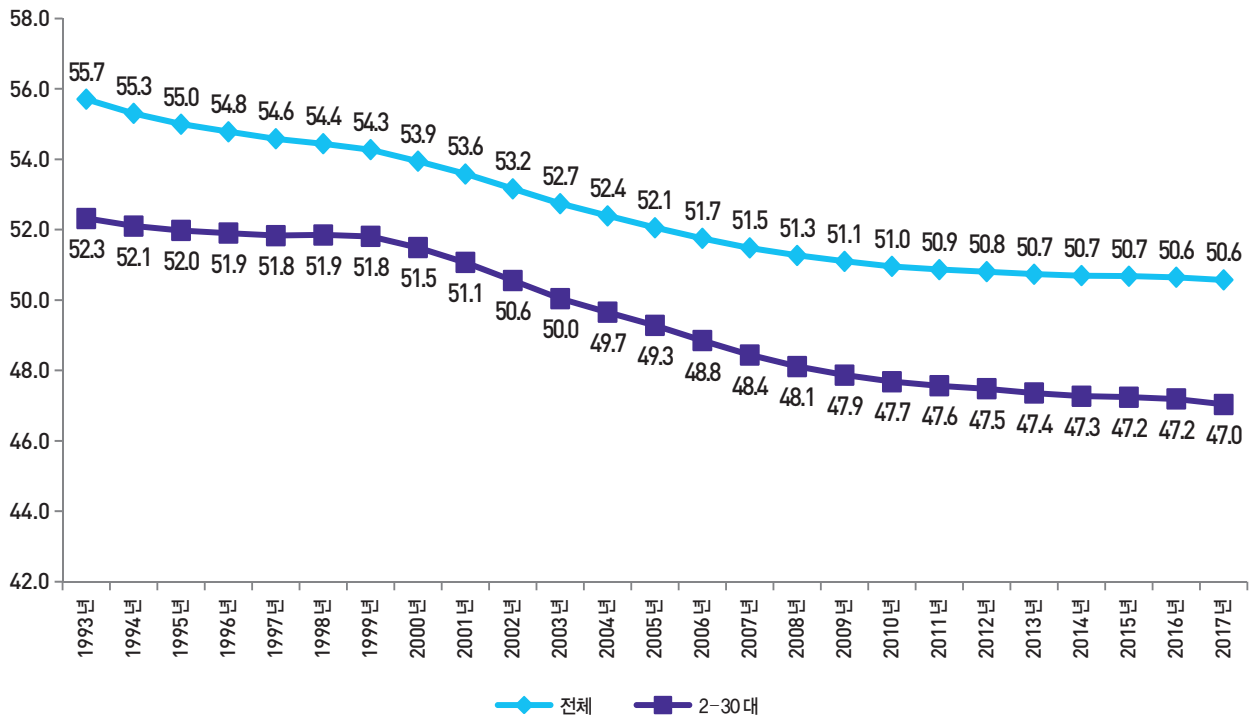
■ 인구절벽의 비대칭성

– 문제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임

- ▶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은 지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 55.7%에서 2017년 50.6%까지 하락함([그림 2] 참조)
- ▶ 특히 2-30대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비중은 2004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7년 기준 수도권 대비 47.0%를 기록함

[그림 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자료를 기반으로 산출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지방의 인구 변화를 분석

- 우선 이상호(2015)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사용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확장하여 최근의 변화추이를 살펴봄
 - ▶ 특히 기존의 시군구 기준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읍면동 수준의 분석을 통해 자료의 공간적 분석범위가 넓을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집계오류’(aggregation errors)를 최소화하고자 함
- 다음으로 지방소멸위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인 인구이동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봄
 - ▶ 소멸위험지역, 고용위기지역, 혁신도시와 같이 지역의 인구 유입 혹은 유출을 가져오는 외부적 충격 혹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것임

II. 지방소멸위험지수의 최근 추이

■ 분석 자료의 구성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28개 시군구 및 3,463개의 읍면동으로 패널화함
 - ▶ 2013-2017년은 각 연도 7월, 2018년은 6월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 ※ '16년 7월은 전국 수준에서 소멸위험지수가 1.0미만으로 하락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므로 각 연도 7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18년은 분석시점에서 최근 월자료를 활용
- ▶ 3,463개의 읍면동은 각 연도별 행정동의 신설, 폐지, 통합 등을 반영하여 연도간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도록 연계한 것임
- ▶ 행정동의 통폐합 기준은 통계청의 각 연도별 행정구역 분류 연계표를 이용함

■ 소멸위험지수의 정의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지방소멸』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2015)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것임
 - ▶ 어떤 지역 혹은 공동체의 '소멸위험지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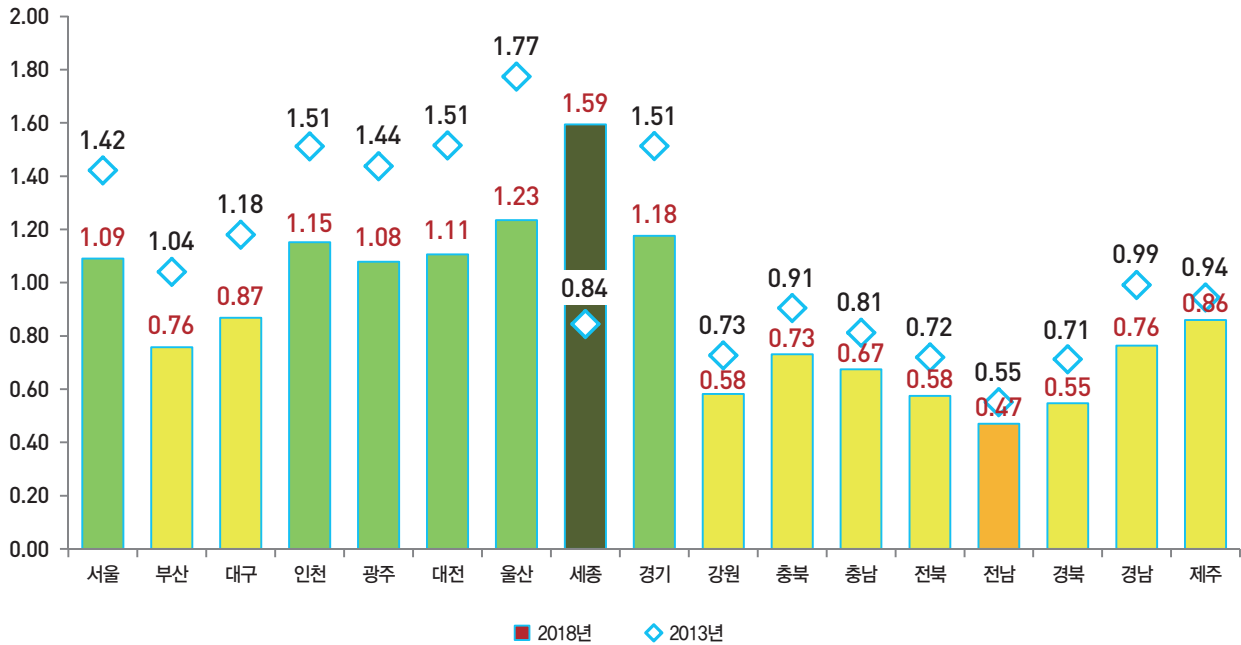
$$\text{소멸위험지수} = \frac{\text{20-39세 여성인구 수}}{\text{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 단순화된 조건을 가정할 때,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이하(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보다 적은 상황)로 하락하는 경우, 그 공동체(국가, 광역, 기초지역)는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만일 이 지수가 0.5 이하(즉,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 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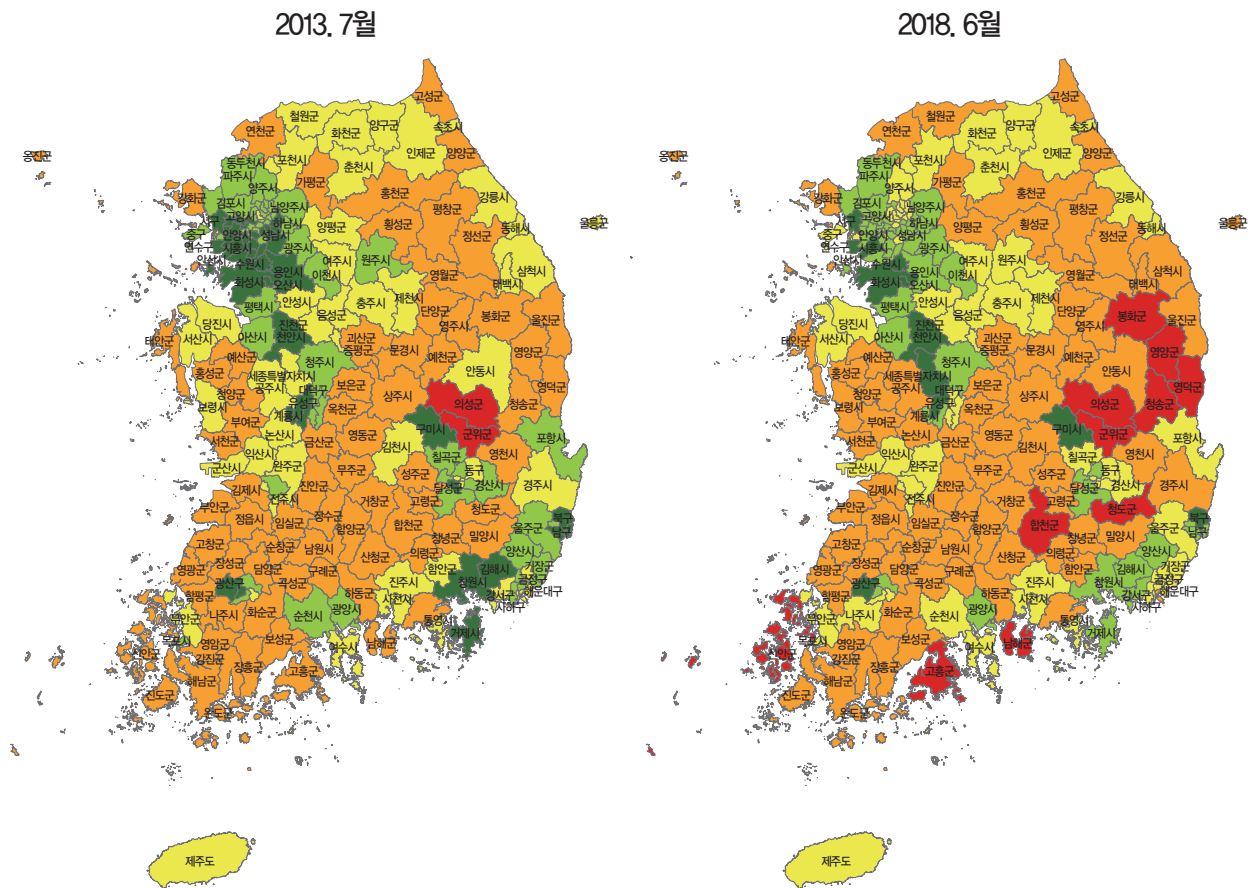
가. 시도 및 시군구별 추이

- '18. 6월 전국수준의 소멸위험지수는 0.91(=6,801/7,513천명)을 기록함(그림 3, 부표 1)
 - 전국적으로 '16. 7월 20-39세 여성인구 수는 6,898천 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6,903천명보다 처음으로 적은 규모를 기록하여 소멸위험지수가 1.0미만을 기록함
 - ▶ '16.7월 - '18.6월까지 2년 기간 동안 전국적인 소멸위험지수는 약 10%가까운 수준이 감소(즉 소멸위험이 증가)함
 -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은 모두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인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으며,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0.76)과 대구(0.87) 역시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18. 6월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7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함
 - ▶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16. 7월에 이미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인 0.5에 이름
 - 반면 '18. 6월 세종의 소멸위험지수는 1.59로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이 낮음
- '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년대비 4개가 증가(그림 4, 부표 2)
 -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으로는 강원도 철원군(0.48),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4), 김천시(0.496) 등임
 - ▶ 기존 소멸위험지역 중 '16년에 광역시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부산 영도구('18년 0.427)와 동구('18년 0.450) 가 있으며, '17년에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18년 0.445)가 진입함
 - ▶ 더 이상 지방소멸의 문제가 놓여준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함
 - '13년 7월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32.9%(75개)를 차지하였으나, '18. 6월에는 39%(89개)로 증가함
 - ※ '18. 6월 기준 경남 사천시(0.507), 전북 완주군(0.509) 등도 2018년 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그림 3]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



[그림 4]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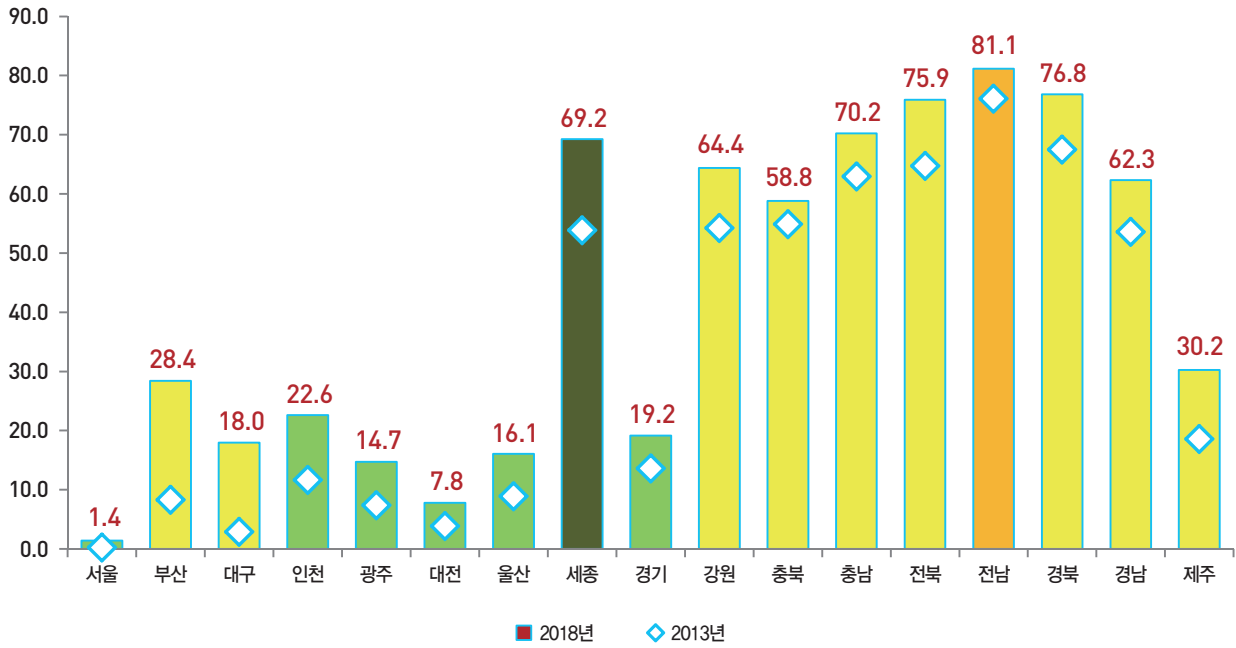
나. 읍면동별 추이

- '18년 6월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43.4%를 차지함
 - 같은 시점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39%인데 비해 집계단위를 세분화할 경우 소멸위험지역의 비중이 더욱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13년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1,229개 35.3%였던 것과 비교할 때, 274개(7.9%p)가 증가한 것임
 - 비수도권의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57.8%로 절반을 상회함
 - 비수도권-도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70.1%를 넘어섬
 - 비수도권-광역시의 경우 소멸위험지역 비중이 20.7%에 불과하지만, '13년 7월과 비교할 때 13.4%p 증가하여 도지역보다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음
 - 읍면동 수준의 소멸위험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1%, 경북 76.8%, 전북 75.9%, 충남 70.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부산의 경우 '13.7월 소멸위험 읍면동이 8.3%(=17/204개)였으나, '18.6월 28.4%(=58/204개)로 무려 20.1%p가 증가함
 - 대구 역시 '13.7월 소멸위험 읍면동이 2.9%(=4/139개)였으나, '18.6월 18.0%(=25/139개)로 15.1%p 증가함
- ※ 세종의 경우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 동이 분리-신설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시계열 연계를 위해 이들 '동'지역들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과소평가됨

〈표 1〉 광역권역별 소멸위험 읍면동 수 및 비중

	소멸위험 읍면동						전체 읍면동
	2013년(A)		2018년(B)		증감(B-A)		
	개수	%	개수	%	개수	%p	
비수도권	1,137	(48.4)	1,360	(57.8)	223	(9.5)	2,351
도지역	1,094	(61.9)	1,239	(70.1)	145	(8.2)	1,767
광역시	43	(7.4)	121	(20.7)	78	(13.4)	584
수도권	92	(8.3)	143	(12.9)	51	(4.6)	1,112
전국	1,229	(35.5)	1,503	(43.4)	274	(7.9)	3,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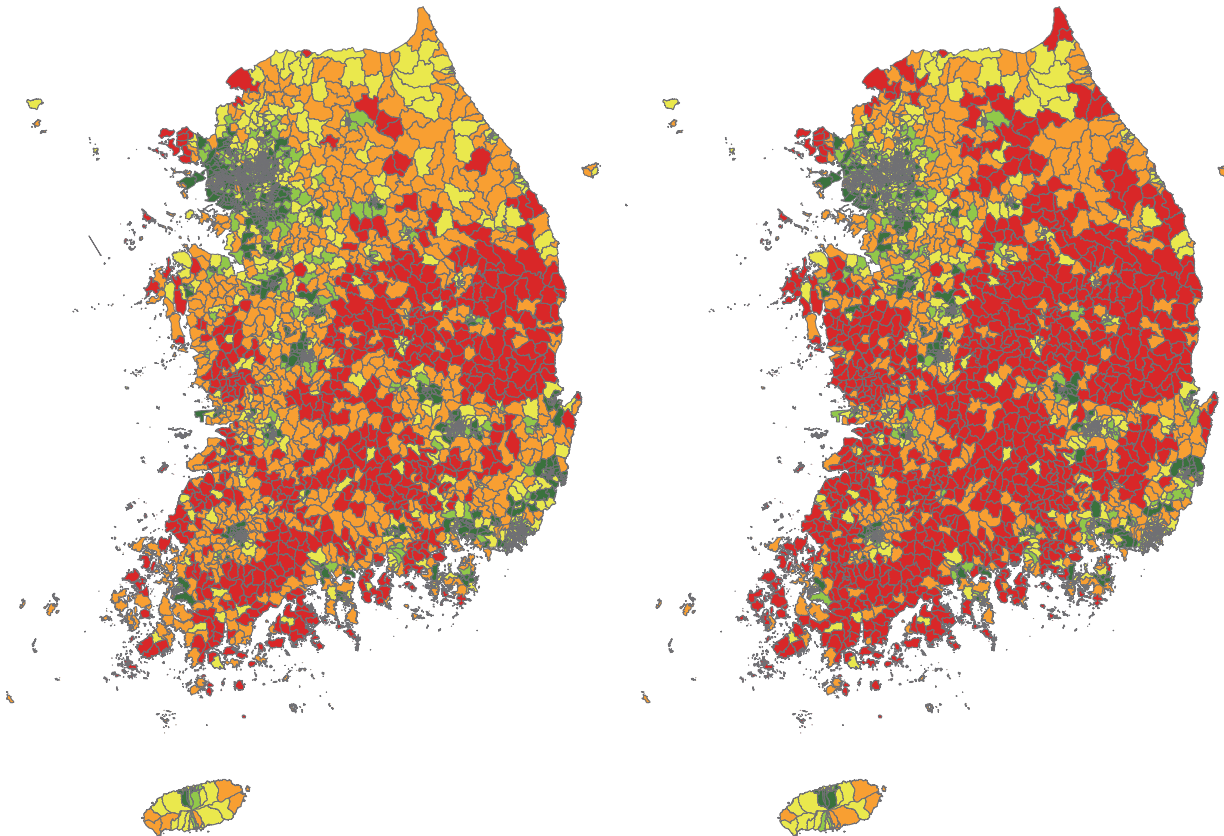
[그림 5] 3,463개 읍면동 기준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비중



[그림 6] 3,463개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 현황

2013. 7월

2018. 6월



III.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유출입 패턴

■ 분석 취지

- 국가 수준의 인구변화가 출생-사망-고령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지역 간 인구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인구유출입에 의한 사회적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이 장에서는 소멸위험지역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의 외부 충격에 의한 산업쇠퇴 및 혁신도시와 같은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인구이동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타나며,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 자료의 구성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2013-2017년까지의 인구 이동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약 37백만 개의 개인별 이동건수 자료를 분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7,411,784건	7,629,098건	7,755,286건	7,378,430건	7,154,226건	37,328,82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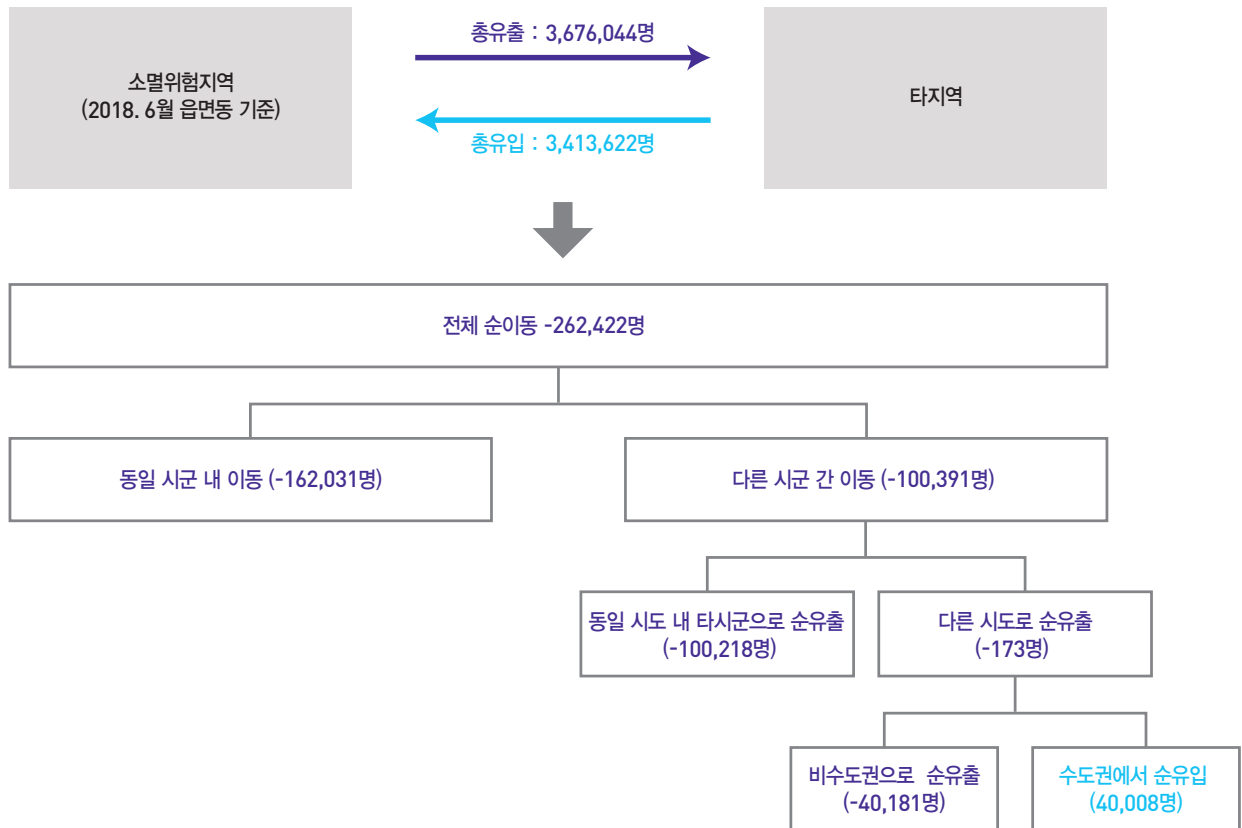
■ 분석대상과 범위

- 소멸위험지역 : '18. 6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기준 20-30대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0.5미만인 읍면동의 '13-'17년까지의 인구변동 분석
- 고용위기지역 : '18년 4-5월 사이 지역내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구(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남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 혁신도시 : 세종시를 제외한 10개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읍면동 기준에서 정의함
 - ▶ 부산(영도구 동삼동, 남구 문현동, 해운대구 우동), 대구(동구 신서동), 전남(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울산(중구 우정동), 강원(원주시 반곡동), 충북(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전북(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경북(김천시 울곡동), 경남(진주시 충무공동), 제주(서귀포시 서호동) 등

가. 소멸위험지역

- 지난 5년간 소멸위험지역(읍면동)에서 262천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함
 - 2013-2017년 기간 동안 소멸위험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된 인구는 3,676,044명, 타지역으로부터 소멸위험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3,413,62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262,422명의 순유출이 발생함
 - ▶ 이중 소멸위험지역(읍면동)이 속한 동일 시군구로 유출된 인구가 61.7%(162,031명)를 차지하며, 다른 시군구로 유출된 인구는 38.3%(100,391명)을 차지함
 - ▶ 다른 시군 간 이동 중 소멸위험지역이 속한 동일 시도 내 타시군으로 유출된 인구는 100,218명임
 - ▶ 다른 시도로 순유출된 인원은 173명이지만, 비수도권으로의 순유출 40,181명과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 40,008명이 발생함
 - 연령별로는 20대 - 170천명 > 30대 - 109천명 > 10대 이하 - 63천명 순으로 이들을 모두 합한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 34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 특히 20대의 경우 시도 간 이동이 62.3%를 차지하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함
 - ▶ 30대의 경우 시군 간 인원 중 타시군의 동일 시도 내 이동이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 2-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 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으로부터의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의 순유출이 발생함
 - 40대 이상 인구는 오히려 소멸위험지역으로 약 8만명 정도의 순유입이 발생함
 - ▶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 규모는 50대가 66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6천명)와 60대 이상(7천명)도 순유입이 발생함
 - ▶ 특히 50대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도 42천명(63.6%)이나 발생하여 귀농귀촌 등을 통한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함

[그림 7] 소멸위험지역의 인구이동 흐름 개괄 : 2013-2017년



〈표 2〉 소멸위험지역의 순유출입 인원 : 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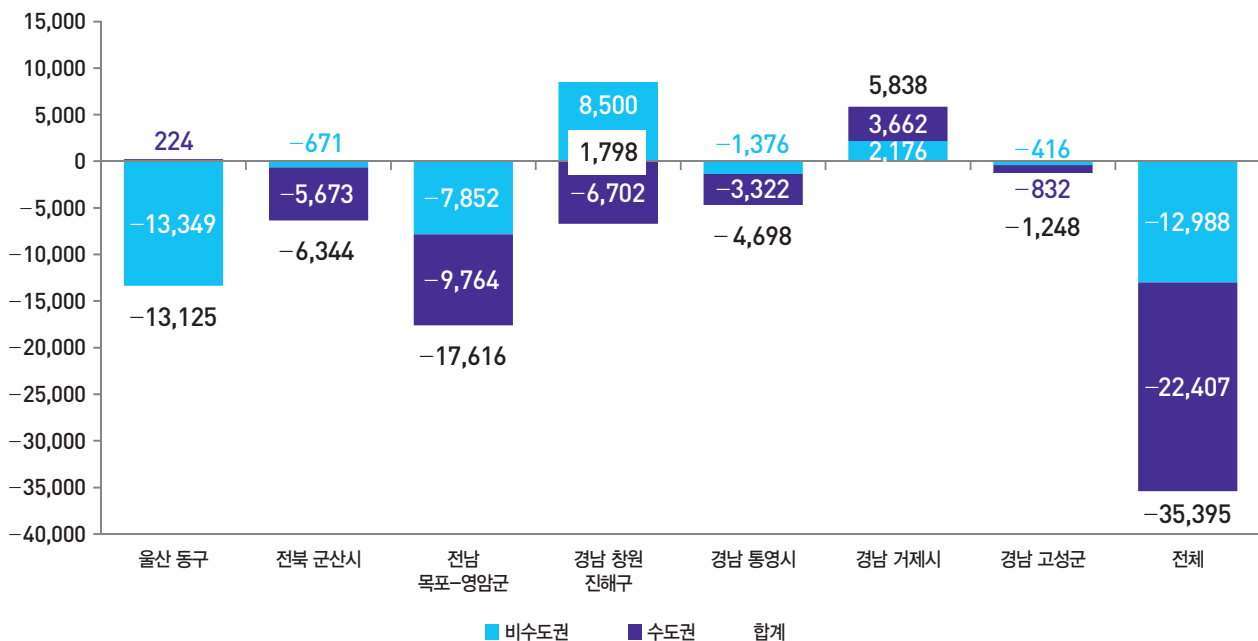
(단위: 명, %)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시군 내	-40,406 (63.8)	-29,744 (17.5)	-47,282 (43.5)	-19,546 (-322.9)	-8,088 (-12.2)	-16,965 (-228.0)	-162,031 (61.7)
시군 간	-22,963 (36.2)	-140,652 (82.5)	-61,345 (56.5)	25,599 (422.9)	74,564 (112.2)	24,406 (328.0)	-100,391 (38.3)
시도 내	-20,689 (32.6)	-34,476 (20.2)	-40,291 (37.1)	-5,543 (-91.6)	6,793 (10.2)	-6,012 (-80.8)	-100,218 (38.2)
시도 간	-2,274 (3.6)	-106,176 (62.3)	-21,054 (19.4)	31,142 (514.5)	67,771 (101.9)	30,418 (408.8)	-173 (0.1)
비수도권	-11,149 (17.6)	-42,484 (24.9)	-22,560 (20.8)	6,792 (112.2)	25,461 (38.3)	3,759 (50.5)	-40,181 (15.3)
수도권	8,875 (-14.0)	-63,692 (37.4)	1,506 (-1.4)	24,350 (402.3)	42,310 (63.6)	26,659 (358.3)	40,008 (-15.2)
전체	-63,369 (100.0)	-170,396 (100.0)	-108,627 (100.0)	6,053 (100.0)	66,476 (100.0)	7,441 (100.0)	-262,422 (100.0)

나. 고용위기지역

- 지난 5년간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총 35,39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위기지역의 순유출인원 중 63.3%(22,407명)는 수도권으로 이동
 - ▶ 인원 수 기준으로는 전남 목포-영암에서 17,616명이 순유출되어 고용위기지역 전체 순유출인구의 약 절반 정도(49.8%)를 차지함
 - ▶ 거제시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은 5,838명의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5,621명이 순유출됨
 - 울산 동구의 경우, 전체 순유출인구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8] 고용위기지역의 수도권 순유출입 인원(명) : 2013-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동구	1,389	-3,513	-3,206	-1,867	-5,928	-13,125
군산시	-970	-1,005	-543	-1,295	-2,531	-6,344
목포시	-4,999	-2,468	-1,282	-1,005	-3,335	-13,089
영암군	-1,088	-291	-763	-1,107	-1,278	-4,527
진해구	-1,688	-1,301	2,569	460	1,758	1,798
통영시	16	-684	-622	-1,178	-2,230	-4,698
거제시	2,741	3,814	4,904	-968	-4,653	5,838
고성군	-308	-211	-299	-217	-213	-1,248
전체	-4,907	-5,659	758	-7,177	-18,410	-35,395

다. 혁신도시

- 지난 5년간 혁신도시의 인구는 123천명의 순유입이 발생함
 -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위치한 시군구 내로부터의 전입이 45.3%를 차지하며, 타시도로부터의 유입은 36.5%를 차지함
 - ▶ 비수도권의 타시도로부터의 유입은 15.6%이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19.3%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37천명 > 30대 32천명 > 20대 16천명 순으로 이들을 모두 합한 30대 이하의 순유입 인원은 8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 30대 이하의 수도권으로부터의 순 유입은 17.0% 수준이지만, 20대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40대 이상 인구의 순유입 358천명 중 50.7%는 시군구 내 유입이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24.4%로 30대 이하보다 높게 나타남
 - ▶ 특히 동일 시군구 내 유입은 40대 45.4%, 50대 53.9%, 60대 이상 64.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3〉 혁신도시의 연령별 순유출입 인원 : 2013~2017년

(단위: 명, %)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시군 내	16,109 (43.4)	7,467 (47.1)	12,904 (40.1)	9,756 (45.4)	5,856 (53.9)	3,626 (64.6)	55,718 (45.3)
시군 간	20,987 (56.6)	8,396 (52.9)	19,300 (59.9)	11,724 (54.6)	5,018 (46.1)	1,988 (35.4)	67,413 (54.7)
시도 내	7,347 (19.8)	3,630 (22.9)	5,659 (17.6)	3,644 (17.0)	1,552 (14.3)	622 (11.1)	22,454 (18.2)
시도 간	13,640 (36.8)	4,766 (30.0)	13,641 (42.4)	8,080 (37.6)	3,466 (31.9)	1,366 (24.3)	44,959 (36.5)
비수도권	6,463 (17.4)	5,020 (31.6)	4,918 (15.3)	2,319 (10.8)	608 (5.6)	-129 (-2.3)	19,199 (15.6)
수도권	6,937 (18.7)	-816 (-5.1)	8,363 (26.0)	5,454 (25.4)	2,556 (23.5)	1,261 (22.5)	23,755 (19.3)
전체	37,096 (100.0)	15,863 (100.0)	32,204 (100.0)	21,480 (100.0)	10,874 (100.0)	5,614 (100.0)	123,131 (100.0)

- 혁신도시 유입인구 123천명 중 전북 34천명, 전남 27천명으로 호남지역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특히 전남 혁신도시의 타시도 유입 비중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다만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20.3%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충북과 제주 혁신도시는 순유입 규모는 1만명에 못미치지만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비중은 제주가 약 절반(49.2%), 충북이 40.2%로 높게 나타남
 - 부산과 울산 혁신도시는 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광역대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 공간과 주거공간 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강원, 경북, 경남 혁신도시는 모두 시군구 내 유입이 절반 이상을 초과하고 있음
 - ▶ 특히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약 70% 정도가 진주시 역내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10.2%에 그침
 - ▶ 반면 강원 혁신도시의 원주시 역내 인구의 유입이 61.8%로 높지만,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역시 23.0%로 혁신도시 평균을 상회함

〈표 4〉 혁신도시별 순유출입 인원 : 2013-2017년

(단위: 명, %)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시군 내	-489 (4.3)	4,540 (36.5)	-1,313 (52.5)	12,008 (61.8)	2,468 (32.6)	11,847 (34.7)	5,970 (22.2)	9,600 (52.9)	9,371 (69.7)	1,046 (27.4)	55,718 (45.3)
시군 간	-10,973 (95.7)	7,891 (63.5)	-1,189 (47.5)	7,413 (38.2)	5,092 (67.4)	22,308 (65.3)	20,870 (77.8)	8,545 (47.1)	4,068 (30.3)	2,767 (72.6)	67,413 (54.7)
시도 내	-8,430 (73.5)	4,092 (32.9)	-662 (26.5)	1,652 (8.5)	973 (12.9)	16,882 (49.4)	2,512 (9.4)	2,937 (16.2)	2,128 (15.8)	198 (5.2)	22,454 (18.2)
시도 간	-2,543 (22.2)	3,799 (30.6)	-527 (21.1)	5,761 (29.7)	4,119 (54.5)	5,426 (15.9)	18,358 (68.4)	5,608 (30.9)	1,940 (14.4)	2,569 (67.4)	44,959 (36.5)
비수도권	-1,669 (14.6)	2,456 (19.8)	-357 (14.3)	1,296 (6.7)	1,078 (14.3)	1,307 (3.8)	12,902 (48.1)	1,954 (10.8)	564 (4.2)	693 (18.2)	20,447 (16.6)
수도권	-874 (7.6)	1,343 (10.8)	-170 (6.8)	4,465 (23.0)	3,041 (40.2)	4,119 (12.1)	5,456 (20.3)	3,654 (20.1)	1,376 (10.2)	1,876 (49.2)	24,512 (19.9)
전체	-11,462 (100.0)	12,431 (100.0)	-2,502 (100.0)	19,421 (100.0)	7,560 (100.0)	34,155 (100.0)	26,840 (100.0)	18,145 (100.0)	13,439 (100.0)	3,813 (100.0)	123,131 (100.0)

IV. 맺음말

-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님
 -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이미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음
 - 인구의 정체-쇠퇴 국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광역대도시)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감소의 충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음
 -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연쇄효과는 지역단위를 세분화(시도 → 시군구 → 읍면동)할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
 - 기존의 농어촌 지역은 귀농 등에 의한 중고령층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의해 저균형 상대로 진입하고 있음
 - 최근 조선업, 자동차 등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방아쇠 역할을 함
 - 부산과 같은 광역 대도시에서도 원도심 쇠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청년층의 유출로 소멸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 혁신도시는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하지만 균등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님
 - 혁신도시의 인구유입은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배후 대도시 존재여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교통 인프라 등에 따라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보다는 오히려 역내 인구를 흡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청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

〈부록〉

〈부표 1〉 전국 및 17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수						18. 6월 인구(천명)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7월	2016년 7월	2017년 7월	2018년 6월	20-39세 여성	65세 이상	전체
전국	1.16	1.09	1.04	1.00	0.95	0.91	6,801	7,513	51,801
서울	1.42	1.33	1.26	1.20	1.14	1.09	1,513	1,388	9,814
부산	1.04	0.97	0.91	0.86	0.81	0.76	438	578	3,456
대구	1.18	1.09	1.02	0.98	0.92	0.87	310	357	2,470
인천	1.51	1.43	1.35	1.30	1.22	1.15	408	354	2,954
광주	1.44	1.34	1.27	1.20	1.13	1.08	198	184	1,461
대전	1.51	1.42	1.32	1.25	1.18	1.11	205	185	1,495
울산	1.77	1.65	1.54	1.45	1.34	1.23	149	120	1,160
세종	0.84	0.93	1.31	1.48	1.55	1.59	45	28	300
경기	1.51	1.43	1.35	1.30	1.23	1.18	1,776	1,511	12,975
강원	0.73	0.69	0.66	0.64	0.61	0.58	166	285	1,545
충북	0.91	0.86	0.83	0.81	0.76	0.73	188	257	1,596
충남	0.81	0.78	0.74	0.72	0.70	0.67	248	368	2,122
전북	0.72	0.68	0.65	0.63	0.60	0.58	204	354	1,845
전남	0.55	0.53	0.51	0.50	0.48	0.47	193	411	1,888
경북	0.71	0.67	0.64	0.62	0.58	0.55	286	523	2,681
경남	0.99	0.94	0.89	0.85	0.81	0.76	393	514	3,377
제주	0.94	0.92	0.90	0.89	0.87	0.86	81	95	664

〈부표 2〉 소멸위험 시군구 수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7월	2016년 7월	2017년 7월	2018년 6월
전체 시군구 수	228	228	228	228	228	228
소멸저위험	41	30	24	20	16	12
정상지역	57	63	62	61	54	51
소멸주의단계	55	56	62	63	73	76
소멸위험진입	73	76	76	79	78	78
소멸고위험	2	3	4	5	7	11
소멸위험지역 소계	75	79	80	84	85	89
(비중)	(32.9)	(34.6)	(35.1)	(36.8)	(37.3)	(39.0)

주 : 228개 기초지자체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작성.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부표 3〉 소멸위험 읍면동 수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7월	2016년 7월	2017년 7월	2018년 6월
전체 시군구 수	3,463	3,463	3,463	3,463	3,463	3,463
소멸저위험	793	668	562	511	435	368
정상지역	723	741	744	718	672	627
소멸주의단계	718	776	823	852	919	965
소멸위험진입	696	676	667	676	678	689
소멸고위험	533	602	667	706	759	814
소멸위험지역 소계	1,229	1,278	1,334	1,382	1,437	1,503
(비중)	(35.5)	(36.9)	(38.5)	(39.9)	(41.5)	(43.4)

주 : 3,463개의 읍면동은 각 연도별 행정동의 신설, 폐지, 통합 등을 반영하여 연도간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도록 연계한 것임.
 행정동의 통폐합 기준은 통계청의 각 연도별 행정구역 분류 연계표를 이용하여 매칭함
 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부표 4〉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2013년 7월				2018년 6월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경북	의성군	56,531	3,826	19,181	0.199	53,166	3,112	20,567	0.151
전남	고흥군	70,837	4,897	24,384	0.201	66,284	4,108	25,521	0.161
경북	군위군	24,125	1,613	8,135	0.198	24,386	1,522	9,008	0.169
경남	합천군	49,958	3,649	16,421	0.222	46,538	2,935	17,145	0.171
경남	남해군	47,522	3,563	15,346	0.232	44,386	2,845	15,931	0.179
경북	청송군	26,395	1,881	8,067	0.233	25,874	1,642	8,921	0.184
경북	영양군	18,262	1,325	5,705	0.232	17,482	1,137	6,074	0.187
경북	청도군	43,747	3,321	12,987	0.256	43,171	2,913	15,008	0.194
경북	봉화군	33,962	2,539	10,117	0.251	33,177	2,171	11,012	0.197
경북	영덕군	40,255	3,107	12,362	0.251	38,381	2,617	13,248	0.198
전남	신안군	44,157	3,122	13,362	0.234	41,960	2,778	14,022	0.198
전남	보성군	46,641	3,694	14,777	0.250	43,504	3,090	15,446	0.200
경남	산청군	35,859	2,624	10,982	0.239	36,183	2,467	12,035	0.205
경남	의령군	29,460	2,381	9,233	0.258	27,828	2,010	9,639	0.209
전남	함평군	35,619	2,698	11,083	0.243	33,973	2,410	11,479	0.210
충남	서천군	58,637	4,747	16,743	0.284	54,628	3,792	18,028	0.210
충북	괴산군	37,794	2,835	10,747	0.264	38,329	2,622	11,949	0.219
충남	청양군	32,104	2,427	9,630	0.252	32,228	2,311	10,471	0.221
전남	진도군	33,059	2,680	9,883	0.271	31,566	2,265	10,174	0.223
전북	임실군	29,658	2,360	9,192	0.257	29,139	2,174	9,647	0.225
충북	보은군	34,258	2,629	9,822	0.268	33,876	2,397	10,549	0.227
경남	하동군	50,245	4,096	13,877	0.295	47,893	3,388	14,788	0.229
경남	함양군	40,683	3,237	11,746	0.276	40,047	2,888	12,597	0.229
전남	곡성군	31,238	2,589	9,620	0.269	30,121	2,300	10,031	0.229
전북	무주군	25,363	2,154	7,137	0.302	24,699	1,776	7,693	0.231
충남	부여군	72,729	5,925	19,374	0.306	68,478	4,961	21,401	0.232
전북	장수군	23,181	1,902	6,595	0.288	22,920	1,672	7,133	0.234
전북	진안군	26,876	2,270	7,832	0.290	26,213	1,981	8,399	0.236
전남	구례군	27,045	2,191	7,850	0.279	26,966	2,009	8,463	0.237

시도명	시군구명	2013년 7월				2018년 6월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전남	장흥군	41,647	3,328	12,234	0.272	39,697	3,054	12,631	0.242
전북	고창군	60,001	4,867	16,850	0.289	57,758	4,354	17,977	0.242
인천	강화군	66,555	5,429	17,739	0.306	68,753	5,093	20,826	0.245
전남	강진군	40,160	3,646	11,432	0.319	36,637	2,929	11,858	0.247
전남	완도군	53,680	4,460	14,880	0.300	51,865	3,984	15,778	0.253
전북	부안군	58,204	5,018	15,512	0.323	55,362	4,322	16,668	0.259
전북	순창군	29,459	2,540	8,900	0.285	29,414	2,434	9,239	0.263
충북	단양군	31,152	2,580	7,408	0.348	30,282	2,224	8,301	0.268
경북	상주시	103,727	8,975	26,296	0.341	100,217	7,783	28,905	0.269
경북	성주군	44,920	3,835	11,190	0.343	44,745	3,500	12,996	0.269
전남	해남군	77,863	6,888	20,777	0.332	72,743	5,910	21,829	0.271
충남	금산군	55,476	4,944	13,536	0.365	53,599	4,076	15,042	0.271
경북	예천군	45,814	3,584	14,276	0.251	52,068	4,291	15,777	0.272
경남	고성군	56,623	5,176	13,671	0.379	53,651	4,119	15,051	0.274
경북	고령군	35,260	3,251	8,287	0.392	33,360	2,601	9,299	0.280
충남	태안군	62,490	5,533	14,979	0.369	63,744	4,992	17,833	0.280
강원	양양군	27,652	2,495	6,497	0.384	27,325	2,096	7,450	0.281
충남	예산군	85,420	7,927	20,302	0.390	80,384	6,429	22,842	0.281
전북	김제시	91,626	8,444	23,517	0.359	86,235	7,150	25,170	0.284
경남	창녕군	63,404	5,480	16,026	0.342	63,895	5,130	17,940	0.286
충북	영동군	50,628	4,493	12,907	0.348	49,929	4,088	14,237	0.287
강원	영월군	40,263	3,504	9,292	0.377	40,002	3,031	10,493	0.289
경북	문경시	75,653	7,150	17,798	0.402	72,608	5,873	20,180	0.291
충북	옥천군	52,844	4,933	12,134	0.407	51,723	4,216	13,954	0.302
전남	담양군	47,423	4,467	12,576	0.355	47,111	4,152	13,704	0.303
강원	횡성군	44,772	3,913	10,547	0.371	46,503	3,716	12,217	0.304
전남	장성군	46,162	4,240	11,978	0.354	46,007	4,056	12,927	0.314
강원	평창군	43,610	4,057	9,226	0.440	42,809	3,332	10,540	0.316
강원	고성군	30,166	2,772	6,700	0.414	28,596	2,320	7,322	0.317
강원	정선군	39,932	3,921	8,412	0.466	37,934	3,019	9,439	0.320

시도명	시군구명	2013년 7월				2018년 6월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전남	영광군	57,567	5,379	14,141	0.380	54,601	4,818	15,028	0.321
경북	울진군	51,786	4,650	12,377	0.376	50,454	4,194	12,981	0.323
경북	영천시	101,085	9,778	22,832	0.428	100,312	8,643	26,400	0.327
경남	거창군	63,038	5,921	14,797	0.400	62,796	5,401	16,142	0.335
경남	밀양시	108,343	10,440	23,194	0.450	107,159	9,134	27,157	0.336
인천	옹진군	20,542	1,749	4,071	0.430	21,233	1,656	4,905	0.338
전북	남원시	86,708	8,554	19,485	0.439	82,856	7,257	21,293	0.341
전남	영암군	59,551	5,972	13,058	0.457	55,158	4,776	13,799	0.346
경북	영주시	112,018	10,943	22,499	0.486	107,578	9,172	26,087	0.352
전북	정읍시	118,689	11,824	26,445	0.447	113,115	10,137	28,695	0.353
강원	홍천군	69,952	6,832	14,078	0.485	70,074	6,058	16,202	0.374
전남	화순군	68,058	6,969	14,856	0.469	64,274	6,059	15,861	0.382
충남	보령시	105,098	10,423	20,838	0.500	102,578	9,224	23,939	0.385
경북	울릉군	10,894	1,104	2,043	0.540	10,010	877	2,268	0.387
경기	가평군	61,155	6,095	12,351	0.493	63,076	5,731	14,574	0.393
충남	논산시	126,052	13,215	26,113	0.506	121,320	11,448	28,927	0.396
경기	연천군	45,719	4,600	9,521	0.483	44,984	4,190	10,522	0.398
경기	양평군	103,257	10,489	20,280	0.517	115,816	10,754	26,248	0.410
충남	공주시	116,720	12,574	22,241	0.565	107,526	10,423	25,326	0.412
경남	함안군	67,622	7,092	12,905	0.550	67,619	6,243	14,655	0.426
부산	영도구	137,613	15,917	24,206	0.658	121,895	12,264	28,705	0.427
강원	태백시	49,127	5,452	8,193	0.665	45,387	4,192	9,777	0.429
강원	삼척시	73,146	7,971	13,806	0.577	68,673	6,788	15,286	0.444
경북	안동시	167,422	18,608	32,062	0.580	162,720	16,267	36,586	0.445
부산	동구	97,046	11,267	18,410	0.612	87,787	9,585	21,317	0.450
충남	홍성군	89,342	9,186	19,052	0.482	101,406	10,340	22,172	0.466
강원	철원군	47,547	5,049	8,623	0.586	46,836	4,496	9,352	0.481
부산	중구	47,499	5,767	8,758	0.658	43,510	5,035	10,245	0.491
경북	경주시	263,770	29,553	43,843	0.674	257,137	25,571	51,809	0.494
경북	김천시	134,962	14,773	26,057	0.567	141,978	14,860	29,989	0.496

고용동향
브리프

07

